



2015년 성탄감사예배 예전

● 전교인 연합 ●
성탄 감사예배



2015년 12월 25일 오전 11:00

전교인이 함께 하는

☆ 성탄 감사 예배 ☆

· 집례자 : 라종렬 목사

• 예배로 나아감

전주 / 참 반가운 성도여(122장으로) / 반주자

예배로 부름 / 눅 2:10-11; 요 4:24 / 인도자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원 / 인도자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의 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옛날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 경배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 천사들의 노래가(125장) / 다함께

성탄절을 위한 기도 / 인도자와 회중

인도자 :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회 중 :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도자 :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회 중 :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도자 :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성부의 광채, 영원한 빛이신 예수님,

회 중 : 오! 주님,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인도자 : 영광의 왕, 의의 태양,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

회 중 : 오! 주님,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인도자 :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주 예수님,

회 중 : 오! 주님,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인도자 : 평화의 왕, 영혼의 목자, 온전히 거룩하신 예수님,

회 중 : 오! 주님,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인도자 : 모든 이의 친구, 가난한 자의 보호자, 신실한 자의 보배 예수님,

회 중 : 오! 주님,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인도자 : 선한 목자, 다함이 없는 지혜, 우리의 길, 우리의 진리, 우리의 생
명 예수님,

회 중 : 오! 주님,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인도자 : 천사들의 기쁨, 모든 성도의 면류관 예수님,

회 중 : 오! 주님,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잠시 침묵의 기도를 한 후에 인도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선포한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계십니다. 그분을 찬양합시다.

땅이여, 주님께 노래하여라.

민족들아. 기쁨으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그분은 영광의 주님이시다. 아멘.

응답송 / 참 반가운 성도여(122장) / 다같이

• 말씀의 선포

성경봉독 / 누가복음 2:1-20 / 다같이

- 1 그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 2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 3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 4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 5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 6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 7 첫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 이러라
- 8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 9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 10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 11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 12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 13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 1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 15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 16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 17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 18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 19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 20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말씀 선포 / 큰 기쁨의 좋은 소식 / 설교자

설교 후 기도 / 설교자

• 입교 예식

입교후보자 호명 / 집례자

<입교 후보자는 예배 시작 전에 앞자리에 앉는다>

입교예식 선언 / 집례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입교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입교예식은 부모의 서약으로 유아세례를 받은 이들이 믿는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으로 자라, 지금 각자가 교회 앞에 신앙고백을 하였으므로 주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허락하는 예식입니다.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에녹이의 마음속에 함께하시기를 기도하오며, 여러 교우들은 이 성도를 도우며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봉독 / 디모데후서 1:3-10 / 집례자

3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 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4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5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 하노라

6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 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7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8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9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10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권면 / 집례자

서약 / 집례자와 입교후보자

1. 문 : 라에녹이는 유아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이 대신하였던 신앙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답 : 예, 확신합니다.

2. 문 : 라에녹이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 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답 : 예, 믿습니다.

3. 문 : 라에녹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답 : 예, 서약합니다.

4. 문 : 라에녹이는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답 : 예, 서약합니다.

회중과의 서약 / 집례자와 회중

주님께서 명하신 입교예식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여기에 선 라에녹이는 이제 주님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라에녹이가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회중 : 예,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정성껏 돌보겠습니다.

기도 / 집례자

주여, 은혜로 에녹이를 도우사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며

날마다 성령님 안에서 자라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백성으로 인쳐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포 / 집례자

라에녹이는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본 광양사랑 의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부터는 교회가 베푸는 성찬에 참여할 것이며,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환영 / 다같이

• 세례 예식

<세례예전예식의 시작에 앞서 유아세례를 받게 되는 유아와 부모는 회중 앞으로 인도되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위치에 서도록 한다.>

예식으로의 초대 / 집례자

2015년 12월 25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며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아이, 박준하의 유아세례를 행하고자 합니다. 여기 우리의 아이, 준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아이가 처음 태어나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이 아이를 지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유아세례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으며, 거룩한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물과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은총의 유아 세례성례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유아세례 후보자 호명 / 집례자

문1 : 이 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이곳에 무엇을 찾으러 나오셨습니까?

답1 : (모두가 함께 대답한다.) 믿음입니다.

문2 : 사랑하는 우리의 아이와 부모님께서는 무엇을 찾으러 나오셨습니까?

답2 : (아이의 부모가 대답한다.)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에 의지하여 우리의 아이 박준하 아버지 박한성, 어머니 장경하의 믿음과 교회의 신앙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서약 / 집례자와 부모, 모든 성도

“먼저 아이의 부모이신 박한성집사님과 장경하집사님께 묻겠습니다.”

문 1 :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박준하 어린이가 세례 받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구원을 얻을 것을 믿으십니까?

답 1 : 네, 믿습니다.

문 2 : 여러분은 박준하 어린이가 세례 받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평생의 삶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믿을 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답 2 : 네, 약속하겠습니다.

문 3 : 여러분은 박준하 어린이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악한 영적 세력을 물리치며, 악한 세력에게 대항할 것에 대해 교육하시겠습니까?

답 3 : 네, 교육하겠습니다.

문 4 : 여러분은 박준하 어린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오늘날의 삶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돈과 명예의 가치를 거절해 주시겠습니까?

답 4 : 네, 거절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예식의 증인이 되실 교회공동체를 향해 묻겠습니다.”

문 1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식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그리스도께 헌신하기로 한 여러분의 결단이 지금도 여전하다는 것을 선언하십니까?

답 1 : 네, 선언합니다.

문2 : 여러분은 이 예식을 통해 자신이 세례를 받으며 했던 고백을 재확인하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간직하시길 원하십니까?

답2 : 네, 간절히 원합니다.

문3 : 여러분은 오늘 이 예식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은혜가 계속될 것을 확신하십니까?

답3 : 네, 확신합니다.

문4 : 여러분은 오늘 세례를 받는 박준하 어린이가 교회공동체 안에서 자라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날까지 교회의 가르침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까?

답4 : 네, 돕겠습니다.

세례수의 성별을 위한 감사기도 / 집례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물은 생명의 물입니다.
이 생명의 물에서 모세는 건져 올려졌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건짐 받아 새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물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우리는 이 물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물에 감사하며,
이제 마음 모아 기도하오니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이 물과 함께하시고,
오늘 이 물을 만나는 우리 모두의 삶에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세례 / 집례자

<아이를 안고 있는 부모는 무릎을 꿇는다. 집례자인 목사는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그 머리에 물을 세 번 뿌린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 박준하에게, 내가 성부와(물을 뿌린다.) 성자와(물을 뿌린다.) 성령의 이름으로(물을 뿌린다.)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의 기도 / 집례자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사랑하는 박준하 어린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성령의 은사를 내리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일평생 성령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숨을 쉴 때나 잠에 들 때나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준하의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온 땅에 평화가 내려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의 시간 / 부모, 모든 성도

이 시간 다 함께 준하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모두 아이에게 축복의 말을 건네길 원합니다.
부모의 축복 / 박한성집사
성도의 축복 / 다같이



• 성찬 성례전

성찬으로의 초대 / 집례자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로 충만한 이때에 그리스도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듣
고구원의 주님을 경배하는 여러분을 이 기쁨의 식탁에 초대합니다. 구원의
소망으로 오시는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집례자 :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회 중 :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집례자 : 마음을 드높여

회 중 : 하나님께 올립니다.

집례자 :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회 중 : 이 모든 일은 마땅하고 올바른 일입니다.

성찬찬송 / 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228장) 1, 4절 / 다함께

1. 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4.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제정의 말씀 / 집례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세상의 빛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시고 자신을 꼭 닮은 사람을 지으시며 “보기 좋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 그 빛을 우리에게
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찬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제자들을 향해 주셨던 떡과 잔은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됩니다.

<집례자는 회중을 향해 질문을 던진다.>

집례자 : 오늘의 식사가 다른 날의 식사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린이 : 오늘의 식사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기쁨의 식사입니다.

회중(어른) : 우리는 이 식사를 통해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베들레헴의 마구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식사를 통해 인류의 먹이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늘 새롭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식사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게 될 천국잔치에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식사를 통해 우리가 모두 여기에 있다는 것, 모두 하나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 / 집례자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십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으로 이 떡과 잔에 은혜를 베푸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떡과 생명의 잔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이제 모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분병분잔 / 집례자와 회중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는 이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이 떡에 참여하

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주신 후 잔을 가지사 축복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다.”

우리는 이 잔을 받을 때 믿음 안에서 새로운 언약을 다시 한 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 떡과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어린이는 예배 후에 따로 준비된 빵을 먹고, 이 성찬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성찬 후 기도 / 집례자

하나님, 주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기억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했음을 우리가 압니다. 영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한 성찬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진리를 말하고 예수님의 정의를 구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 안에서 이제와 영원까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쁨의 찬송 / 천사 찬송하기를(126장) / 다함께

<어린이>

1.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 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성인 회중>

2.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간주 후 모두 다함께>

3.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
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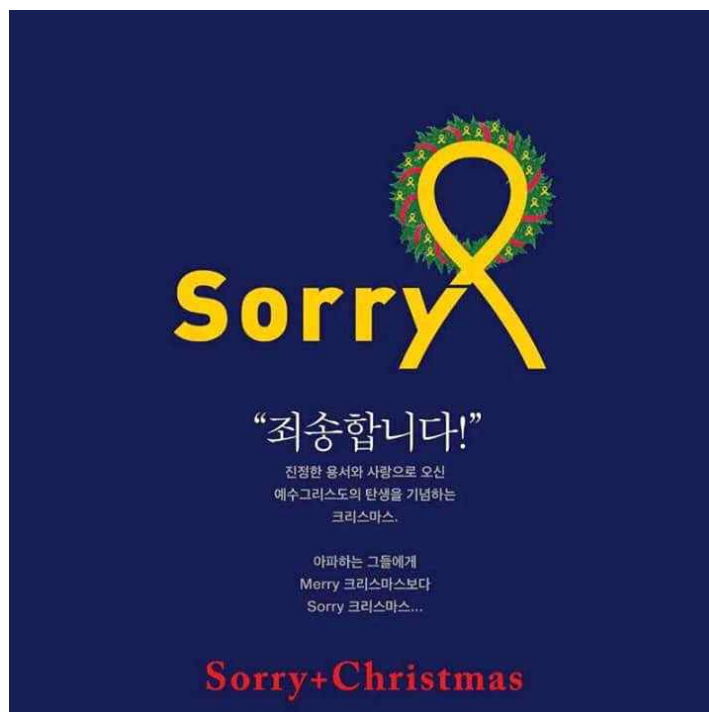
• 위탁과 파송

파송의 말씀 / 집례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평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평화의 사랑으로 연약한 이들을 섬기며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를 위해 기뻐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기를 소망하십시오.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것을 소망하십시오.

축도 / 목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며, 여러분을 지켜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비추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이 보셔서 평화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민
6:24-27).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럼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럼지만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럼기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럼게 하다가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하면서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양사랑의교회

GWANGYANG SARANG PRESBYTERIAN CHURCH

kysarang.org

545-881 진남 광양시 중동 1617-1번지 교회전화 061)793-1294

SAME THING YE SAY

SAME MIND

SAME OPINION

SAME PRODUCT